

내 인생의 체인지업



서울권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365만 서울시 중장년 세대(만40~64세)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활동하고 싶은 중장년 세대의 든든한 내일을 지원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하는
당신의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 소개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40대’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50대’를 위해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재취업과 창업으로
직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집중대상	40대	40대 + 50대		50대
분야	직업 역량 교육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설계·노후준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대학연계 직업교육 •중장년층 직업훈련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이직,전직) 지원 •창업·창직 지원 •보람일자리, 안심/뉴딜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 직업 능력 교육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DX)프로젝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설계상담 및 인생설계학교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풍요로운 인생2막 프로그램

주요사업 소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컨트롤타워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입니다.
중장년 정책사업의 총괄기획과, 사업의 주요 실행단위인 **50플러스캠퍼스를 운영하고**,
지역밀착형 **50플러스센터와 협력**합니다.

일자리 지원

중장년의 경험, 역량, 욕구 기반 일자리 발굴, 취업 및 창업·창직 지원

- + 기업연계 일자리(취업지원)
- + 중장년 인턴십
- + 4050 이직지원 프로그램
- + 창업·창직 지원

사회공헌 지원

참여자에겐 보람을, 사회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 + 서울시 보람일자리
- + 중장년 지역사회돌봄단
- + 디지털 세대이음단

직업능력 개발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전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 직업역량 강화교육
- + 디지털 전환교육
- +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 + 40대 직업캠프

생애설계 지원

4대 영역(일·활동·관계·재무) 생애설계, 경력설계, 취업 컨설팅 제공

- +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
-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 + 취업지원 서비스(기초역량 프로그램, 취업 컨설팅)

“마음을 움직인 여러분 인생의 체인지업!”

전환기를 맞는 서울의 중장년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시작했던 올 한 해가 어느새 다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던 40대를 위한 직업전환교육,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일자리 발굴, 그리고 경력설계와 취업 컨설팅 등 새로운 업을 꿈꾸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세세한 지원 서비스까지 올 한해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막상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올해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런4050, 내 인생의 체인지업!’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각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 어떤 전환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셨는지 사례를 모았습니다. 총 94명의 참여자들이 응모해주셨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분들은 물론 공모전에 응모해주신 참여자 분 모두, 스스로의 전환과 변화의 결실에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 책에 담긴 19개의 스토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의 중장년이 50플러스재단을 만나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동력이 될 사례들입니다. 눈물이 맺힐 만큼 가슴 찡한 사연도, 웃음이 새어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요즘 친구들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소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곁의 405060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적어 내려간 이야기는, 365만 서울의 중장년 누구라도 그간의 경험과 지혜로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옹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스트라이크로 꽂힌 사례자 분들의 인생 체인지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힘있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서울시 중장년 세대와, 이 분들의 가치가 새롭게 빛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서울시 평생교육국장
구중원

내
인생의
체인지업

02	서울시50플러스재단
04	여는 글

01

새로운 내 일을 만나다, 체인지業 #전환

10	interview 최우수상 이해수
12	사례1 “나는 죽지 않았다”
14	interview 우수상 김유진
15	사례2 “서울런4050을 통해 제2의 직업 찾기”
17	interview 우수상 원덕환
18	사례3 “나의 중장년 인턴십 참여 성공기”
20	사례4 강주현 “인생 2막의 디딤돌이 되어 준 50플러스와 서울런4050”
22	사례5 한성호 “정년 연장의 꿈, 경비”
24	사례6 최윤영 “42세에 찾은 찰떡 직업, 여행사OP”
26	사례7 최완용 “바이오 인공지능에서 찾은 꿈과 희망”

02

여전히 배우고 자란다, 체인지UP #성장

30	interview 최우수상 정혜선
32	사례8 “마흔, 또 다른 이름의 기회”
34	interview 우수상 김연수
36	사례9 “내가 먼저 꿈꾸고 3040 엄마들의 꿈이 되리라”
38	interview 우수상 허화경
40	사례10 “50년 만에 자유날개를 달았다!”
42	사례11 서은아 “배움이 만든 변화”
44	사례12 이상숙 “생각을 넘어 발걸음을 옮겨라”
46	사례13 이영미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설계하는 곳”
48	사례14 신수용 “디지털드로잉 작가로 N잡러 도전하기”

03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CHANGE업 #변화

52	interview 최우수상 임진화
54	사례15 “미련한 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
56	interview 우수상 구두갑
58	사례16 “나는 68세 현역입니다”
60	사례17 박경화 “50플러스와 더불어 길을 찾다”
62	사례18 김정미 “50 이후 삶, 위시리스트의 첫 디딤돌”
64	사례19 김덕출 “빈이와 용이를 만나 내 삶이 바뀌었다”
66	닫는 글

나는 돌봄 교사가 되었다



나는 여행사 직원이 되었다



나는 IT기업 과장이 되었다



01

새로운
내일을 만나다

체인지業

#전환



“검색하는 용기부터 낸다면, 삶은 지금보다 더 빛날 거예요”

|
최우수상
이해수 님

어떻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알게 되었나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며 30년 가까이 방문 학습지 교사, 학원 운영 등을 병행한 평범한 50대 주부이자 직장인이었어요. 제 일을 좋아했고 잘했기에 인정도 받아 지역 센터장을 맡았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한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어요. 옆친 데 댔친 격으로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됐죠. 일상이 멈춘 듯한 생활을 이어가다 이대론 안 될 것 같아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도 한동안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간헐 살던 저는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에 뭔가 배울 거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 ‘중장년 일자리’를 검색했더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었어요. 홈페이지에는 중장년인 저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중 직무교육 후에 일자리에 연계하는 ‘돌봄교사 양성사업’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년 간 방문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저에겐 반가운 정보였어요. 당시 펜데믹 여파가 남아있어 온라인 면접과 강의를 통해 교육을 수료했고, 이후 최종 합격을 받아 짜깁악어 교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얻게 된 새 일자리는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젊음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됐을 때 저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제게 힘과 자신감을 찾게 해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아갈 희망을 얻었거든요.

돌봄 교사로서 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들었어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요?

짜깁악어에는 ‘콕찍어’ 라는 메뉴가 있어요. 부모가 돌봄을 요청할 때 기존에 방문했던 교사를 재요청하는 기능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콕찍어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좋은 점수와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항상 축 쳐져 있다가도 선생님이 오면 밝게 웃는다’, ‘한글을 몰라 걱정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한글을 떼게 되어 정말 고맙다’, ‘선생님 오는 시간을 아이가 손꼽아 기다린다’ 등 후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주변의 비슷한 연령대에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 사업들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50대가 되면 각자 쌓아온 커리어가 있을 테고, 그 커리어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중반, 60대가 가까워오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던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좌절감이 오기도 하지만 저에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돌파구가 되어주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대가 뭘 어려워하고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런 50대를 위한 잘 짜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엔 흔히 시작이 힘들다고 합니다. 검색하는 것부터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제 삶이 그랬듯 다른 제 또래들의 삶도 지금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나는 죽지 않았다”

50대 후반을 바라보며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일들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대구가 고향이고 경남 창원이라는 곳으로 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30년 동안 생활했다. 20대부터 결혼 후까지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방문 학습지 교사와 학원운영, 부모상담 등 교육 관련 일을 50대 초반까지 했다. 열심히 노력해왔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에 자신감이 충만했었다. 그 열정 덕분에 종사하던 회사에서 창원지역 센터장이라는 직책까지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는 퇴직을 요구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젊음을 바쳐 충성하며 열심히 일했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니, 처음으로 나이가 들었음에 허무함이 밀려들었다.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된 나의 일상은 무료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일을 찾아보았으나 50세 이상의 구직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또 일이 터졌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더 이상 창원에 있을 수 없어 아이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왔다. 나에게 낯선 서울생활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무섭기까지 했다.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앱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길 찾기 등을 새롭게 배워야만 했다. 새로운 세상에 온듯했다.

슬픔과 두려움에 바깥출입을 하지 않던 중에 ‘혹시 이러다가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 불안함이 생겼다. 억지로라도 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게 되었다. 검색창에 ‘중장년 일자리’라고 치니 ‘서울시50플러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50플러스포털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중장년 취업’을 다시 검색했다.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찾아보던 중 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주관하는 ‘돌봄교사 양성과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째깍악어’를 발견

했다. 째깍악어는 돌봄을 원하는 부모와 돌봄교사를 매칭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다. 30년 동안 아이 교육을 해 온 나에게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동안의 경력을 살린 일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전했다. 돌봄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경험한 째깍악어의 돌봄 서비스는 놀이, 창의 미술, 등하원 이동, 영어, 수학 학습 커리큘럼 등 다양한 돌봄의 유형들 중에서 부모가 원하는 유형에 맞게 돌봄교사를 매칭하고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이 검증된 돌봄 선생님을 통해 서비스를 받다는 게 핵심이라 돌봄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중요하다. 돌봄교사 양성은 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역할교육과 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자질육성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분기별로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특별강좌를 하며 돌봄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지원한다. 교사는 양성과정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돌봄 유형을 선택하고, 앱에 부모님들이 공고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실행하게 된다.

양성과정을 통해 돌봄교사가 되었다. 째깍악어에는 ‘꼭꼭어’ 요청 기능이 있다. 한번 돌봄을 다녀간 선생님에게 재요청 하는 기능이다. 돌봄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꼭꼭어’ 요청이 많아졌다. 내가 따로 돌봄 공고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즐거워하고, 싫어하는 학습도 재미있게 하게 되었다는 학부모님들의 감사 리뷰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다보니 선배 교사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담을 신입 선생님들에게 강의하는 기회까지 갖게 됐다. 이런 결과는 ‘나의 지난 30년 교육경력이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느끼며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게 해 주었다.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동굴 속에서 살아갈 뻔한 나에게, 낯선 도시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 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에 크게 감사한다.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들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물길을 열어주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은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온 세대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5060 세대는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웬지 자신감이 결여되고 도전의식도 줄어든다. 새로운 것이 넘쳐나는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배우는 것조차 힘들고, 선택과 결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없었던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한다. 이런 때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는 우리 세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과 훈련, 생애 설계 서비스 등이 50이후에 살아갈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험한 50플러스재단의 사업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으며,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이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50+

“내게도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단 걸 느껴요”

우수상
김유진 님

50플러스재단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꾸준히 50플러스포털을 들락날락하며 도움 되는 정보가 없는지 찾아봤어요. 그러다 올 봄 포털 첫 화면 배너에 이·전직 지원 프로그램 ‘런앤잡4050’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저는 런앤잡4050의 ‘재무회계’ 수업을 포함해 ‘인공지능 디지털’, ‘여행상품상담사 실무과정’ 등 3가지 교육을 선택했어요. 모든 과목의 수강을 마친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 신생 여행사에 취업하게 됐어요.

힘든 시절을 겪은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을 봐온 가족들의 반응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웃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아졌다고요. 딸은 아빠가 웃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해요. 아내도 수입 등을 다 떠나서 사람이 바뀐 것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과거 구직 기간에) 어떤 상태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내가 그때 가족들을 알게 모르게 힘들게 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주니 정말 고맙고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대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만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던 저를 지지해준 디딤돌 같아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다음 스텝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교육이 제 앞에 딱 나타났고, 각각의 교육이 전부 유효하게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취업까지 됐으니까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회적 안전망이 내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0+

우수상
●
김유진

“서울런4050을 통해 제2의 직업 찾기”

저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 21년간 근무했습니다. 현대전자로 입사했던 회사는 분사, 해외매각, 법정관리, 해외재매각 등을 거쳐 결국 공장이 폐쇄되며 20년이 넘게 재직했던 곳에서 원치 않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남짓 구직활동을 하다가 지인소개로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회사 구조조정으로 또 원치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반 구직활동을 했지만, 팀장 이상 임원급으로 가야하는 저의 경력과 나이, 모기업이 공장폐쇄로 없어졌다는 사실 등으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구직 초기에는 실업급여도 받고 곧 구직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서 수입이 없어졌고,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긴축을 강요하고 예민하게 굴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과 만나면 대화가 안 되고, 모임 식사비를 내는 데 눈치를 보는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나와 같은 실업상태의 과거 직장동료를 만나면 서로 답답한 얘기만 하게 되니 위로가 되기보다는 우울해졌습니다. 점점 사회적 관계가 없어졌고 때로는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만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또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 자꾸 저를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잘못 선택 했나?’, ‘회사를 옮겼어야 했나?’, ‘반도체를 선택했어야 했나?’ 등등. 회사를 나온 것도 자의가 아니었는데, 구직이 되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 있는 돈을 털어 혼자 여행도 다녀왔지만,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도 채워 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인생을 자책이나 하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력은 모두 버리고 새로운 제 2의 직업을 찾

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업을 원한다고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준비 없이 새로운 일을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초50플러스센터에서 경력전환 컨설팅트를 통해 재취업 관련 상담을 받았습니다. 50플러스포털에 자주 접속해 재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플러스포털 배너에 재취업과 관련한 교육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중 3가지 교육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지식’, 둘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재무회계’ 교육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전자회사 출신이니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행이니 ‘여행상품상담사 실무과정’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세 교육 모두 면접을 통과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의 이직을 지원하는 런앤잡 405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 교육에 먼저 참여했고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상상우리’라는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재무회계 실무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에 대한 코칭을 받았는데, 교육과정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노션’이라는 협업 툴이었습니다. 편리한 방식의 운영방법과 깔끔한 문서정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관련 교육은 50플러스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듣게 된 ‘에버영코리아’의 교육이었습니다. 대면교육과 Zoom을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교육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챗gpt’와 문서작업이 결합된 앱인 ‘감마앱’이었습니다. 고화질 무료 사진 사이트 ‘Unsplash’에 관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상담사 실무과정’은 중부캠퍼스를 통해 수강한 대학연계 과정으로, 인덕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여행사의 업무와 관련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더없는 열의를 보여주셨고 함께 수강한 교육생들의 배우겠다는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이 과정 중 교수님 추천으로 신규 여행사인 ‘에이치원투어’에 면접을 보고 ‘여행사 OP’로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업무를 하는데, 교육과정으로 통해 배운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강한 교육들을 통해 좋아하는 분야에 새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수입이 생겨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었으며, 사회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여행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데 교육을 수강한 인덕대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등 든든한 멘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강한 동료들과의 관계도 교육 후에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50+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못할 일은 없어요”

우수상 수상자
원덕환 님



중장년 인턴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지역기반형 인턴십으로, 동작구에 소재한 19개 기업 중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 뽑히면 인턴으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평소 IT 쪽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관련 기업에 지원했고, 해당 업체의 AI(인공지능) 부서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2개월 뒤 정규직 과장으로 발령 받게 되었어요.

정규직이라는 좋은 결실을 이룬 비결이 있을까요?

저의 장점인 티칭 노하우를 살린 것이 좋게 비춰진 것 같아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장애인 직원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업을 전달하고 지도할 수 있었고 그게 곧 성과로 이어지 않았나 싶어요. 또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제 나름대로 유튜브도 찾아보고 배우는 대로 메모하며 주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애썼죠. 이런 노력과 열정, 결과물들을 인정받은 것 아닐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 마음가짐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주로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과 오래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좋고, 제 나이를 인식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이가 있다고 해서 소위 꼰대처럼 되기는 절대 싫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젊은 직원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직원들의 마음, 대표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변의 또래 지인들에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물론이죠. 잘만 한다면 시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잠재돼 있는 걸 끄집어내야 하는데 시도를 안 할 뿐이죠. 시도를 한다 해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 또래는 첫째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50+

나의 중장년 인턴십 참여 성공기

저는 지난 30여 년간 전공을 살려 수확강사와 학원 중간 관리자를 거쳐 학원운영까지 교육업이라는 평생 한 가지 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업계의 불황을 직면했습니다. 불황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 계기였지만, 오랜 시간 격무로 휴식이 필요하던 차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교육 사업을 접게 되었고, 6개월 동안 여행과 휴식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저는 퇴직 후 삶에 두 가지 로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직종에서 새롭게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품고 있던 로망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동작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건기획과에서 3개월 기간제로 보건직원들과 근무하면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민원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능력을 인정받아 4번의 기간제 근무 연장으로 1년간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업무라 걱정이 되었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가며 일을 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일하다보니 자신감 또한 커졌습니다.

보건소에서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하는 중장년 인턴십에 도전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건 지역기반형 인턴십으로 50플러스재단과 동작50플러스센터가 주관한 ‘동작구형 멘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번 새롭게 일하고 싶었던 IT 분야 부서가 있는 회사가 있었고, 응시를 통해 또 한번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지원했던 회사의 연구개발부 AI부서에서 음성 위변조를 탐지하는 앱을 개발 중이었는데 저는 중장년 인턴으로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개발과정에는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 투입되는 장애인, 중장년 인턴 직원들에게 데이터 라벨링을 교육하고, 작업을 지도하는 업무를 배정받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교육에 종사했던 경험이 반영이 된 업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 기초 활용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난관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30분이면 하는 작업을 몇 시간씩 걸려가며 했지만, 59세라는 나이는 잊고 젊은 직원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묻고 배우면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퇴근 후에는 엑셀 등 업무에 필

요한 모든 과정을 공부하고 메모하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노력이 닿았는지, 월 57시간 근무하는 중장년 인턴십임에도 회사의 별도 지원을 받아 월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한 달간 업무 인수인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끝에 젊은 직원들 못지않게 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간의 티칭 노하우를 살려 작업지도와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대표님의 업무 지시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인턴 기간 2개월을 채웠을 무렵, 저는 과장으로 정규직 전환 발령을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 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턴십에 도전하며 열심히 어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을 얻고자 했던 목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험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즐기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로운 목표는 가능하다면 부장까지 승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다시 역량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50+



인생 2막의 디딤돌이 되어 준 50플러스와 서울런4050

글을 쓰기에 앞서 나의 인생 2막에 디딤돌이 되어준 서울시50플러스를 생각하니 울컥하는 벅찬 감정이 듭니다. 저는 27년간 이랜드그룹에서 디자이너와 패션디자인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때의 막막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치 있는 일터가 계속 필요했던 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저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따뜻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저는 다시 용기를 내 한 걸음씩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막연하게나마 중장년 및 시니어 세대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퇴사 이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고를 통해 50플러스재단을 알게 되어 2016년부터 기관 내의 시니어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고, 국내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 후 2019년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50+강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50플러스에서 나의 전문성을 살려 중장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 강사로 활동해 볼 기회를 찾았고, 강의 활동을 통해 중장년 세대에게 패션 스타일링이 매우 관심이 높은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을 이용하는 수강생들, 즉 저의 고객층의 확인을 거친 후, 저는 가능성을 확신하며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전문지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격증도 계속 취득하여 전문성을 계속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코로나19 기간에도 저는 50플러스와 경력개발을 통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에서 강의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지닌 중장년 세대를 만나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취향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50플러스재단에서 선발한 '50+우수강사'로 선정되어 강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50플러스포털을 통해 우수강사로 홍보되면서 다른 복지센터나 수도권권의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강사 초빙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에서 주관한 당사자 연구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분야인 '중장년 여성의 패션을 주제로 잡아 이들의 고민을 직접 묻고 솔루션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에게도 무척 힘든 작업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50+세대가 가진 여성 패

션에 대한 고민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저의 전문지식도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발표된 서울런4050을 통해 더욱 활발히 저의 일·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캠퍼스 공유사무실에 입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고객 미팅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훌륭한 시설의 미디어랩도 영상 촬영을 위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을 통해 유튜브 교육을 받고서는 유튜브 활동도 시작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중장년을 위한 '패션스타일링 아카데미'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높은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50플러스재단을 만나 쌓아온 경력으로 '패션솔루션 더헤이븐'이라는 저만의 당당한 사업장명을 가지고 백화점 아카데미, 고등학교, 노인복지기관 및 장애인기관 등에서 패션 강사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뒤돌아보니, 제가 인생 2막의 시작에서 막연히 꿈꾸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감사한 기회와 격려를 서울시50플러스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받아왔습니다. 만약 퇴사 이후 저 혼자, 사막에 툇 떨어진 느낌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없었고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외로운 시기의 저에게 서울시50플러스는 '인생이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면 기회가 있구나.'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각 현장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진심 가득한 자세와 마음에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서울런4050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일과 활동, 자기개발의 기회를 준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발맞춰 내년에는 패션 스타일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제2의 인생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가까워서 도움을 주는 패션 스타일링 자격증 관련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50플러스재단에 깊이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 관련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50+



정년 연장의 꿈, 경비

대학 졸업 후 줄곧 메이저 신문사에서 편집디자인 일을 했다. 54세에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몇 가지 고민이 있었다. 정년까지 6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후엔 무엇을 할 것인가? 60세부터 놀기에는 여생이 너무 긴데,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업을 하기에든 엄두가 나지 않아 걱정이었다.

우리 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바로 밑에 후배도 부장 승진할 나이가 지났고, 막내가 마흔이 넘을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했다. 팀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신입을 뽑아야 하는데 누군가 그만 두어야 자리가 나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들을 안고 1년을 더 근무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팀과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만류를 뿌리쳤다. 퇴직금 외에 1억여 원의 위로금을 받았으니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만 얻어도 된다는 계산이었다. 할 줄 아는 것은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밖에 없지만 그런 일은 젊은 세대에게 양보하고 단순작업이나 궂은 일을 하기로 했다. 대신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던 중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중장년경비원양성사업' 공고문을 발견했다. '이거다!' 싶었다. 나름 정성을 들여 지원서류를 작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다. 1일간의 소양교육과 3일간의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한국경비협회에서 주선해준 곳에 면접을 봤다. 보다 나은 조건을 따지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지금 씨티은행 본점 빌딩의 시설경비직에 채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에서 가까웠고 70세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좋은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 처음 해보는 일에 실수도 많이 하면서 적응해가다 보니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웃는 얼굴보다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내 할 일만 했었다. 지금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쓴다. 또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선배들과 상의한다. 마치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었던 때로 돌아간 것 같다.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 태어난 것처럼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과거의 영광은 깨끗이 잊고 자존심은 가차 없이 버려야한다. 56년 간 굳어져 버린 습관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사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나 혼자 했다면 결국 실패하고 인생의 공백을 만들었을 게 뻔하다. 술에 취해 옛 이야기나 하는 노인이 되어 사회와 멀어졌을 수도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소중한 재도약의 기회를 잡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24시간 시설을 지키는 경비가 있어야 고연봉의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사회가 지탱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이 일을 하면서 특히 감사한 분이 있다. 수시로 전화해 응원과 격려의 상담을 해주신 중부캠퍼스팀의 담당자님이다. 1년이 지난 후 노련한 경비원의 모습으로 찾아가 식사 한 번 사드릴 생각이다.

5년이 지난다면 조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까? 10년이 지난다면 실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14년이나 남은 직장생활의 시작이다.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이 정도면 정년 연장의 꿈이 실현된 것이 아닐까? 50+



42세에 찾은 찰떡 직업, 여행사OP



안녕하세요! 81년생 최윤영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시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이도 책과 영화를 통해 너무나 공식화된 동시대에 성장했습니다. “항상 웃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될 일도 잘 풀린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변 지인에게 긍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99학번으로 집에서 가깝고 수능점수대 가능한 가나다라 광운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서울과기대를 지원했으나 4곳 모두 추가합격자 감동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은 4년제가 된 그 시절 신홍전문대 환경위생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일하게 된 삼성레미안 모델하우스에서 삼성물산(주) 주택부문 중역 임원 비서로 조기 취업 연결이 되었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분 분사 회사 정직원으로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이후 남편은 서울, 첫아이는 시댁인 대전, 저는 발령받은 충청권에 거주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생활이 힘들어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저는 첫째 아이 돌봄을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함께 4년

을 다녔습니다. 그 사이 보육교사 1급,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4월 둘째 출산 이후에는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퇴사했습니다.

올해 아이들의 스포츠 수업을 찾던 중 50플러스재단과 인덕대학교가 대학연계 전문교육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좋아하는 여행 관련 교육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114시간의 '여행상품 상담 실무과정'을 수료하면서 만 42세인 저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행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고, 메카투어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업무를 진행하는 OP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직업이라 두려움도 크고 고민도 많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에게 찰떡 직업을 찾은 듯합니다. OP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여행업이 처음인 제가 감사하게 메카투어의 '대리'라는 직급을 부여받았고, 입사 두 달이 채 안된 10월 코타키나발루 업무지원 및 인스펙션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가족들 짐을 챙기던 제가 출장으로 나만의 캐리어를 싸고, 공항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안마의자에 앉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5일의 출장 기간 동안 구글 지도를 통해 익히던 현지지를 직접 다녀보고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50플러스재단 사업을 통해 너무나 감사한 분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을 만나 인생 제3의 직업을 찾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들로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42세인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신조가 생겼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본인의 적성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취업으로 성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대는 육아와 다가오는 퇴직의 압박으로 나에 대한 투자, 진로 변경, 창업이 두렵고 도전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한 사업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응원합니다. 50+



바이오 인공장기에서 찾은 꿈과 희망

저는 199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LCD 제조회사 연구개발부서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약 15년간 개발공정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중국에서 10년 넘게 LCD공장 설립과 기술기획, 그리고 완공된 공장의 가동 공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LCD 제조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업종의 퇴직자는 대개 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 후 LCD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영역에서 영입되어 높은 연봉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3년 정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50대 후반 정년퇴직을 한 후 세상이 이미 빠르게 변한 것을 알았습니다. 100세 시대 준비를 각 개인이 했거나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로 예상하지 못한 인생 2막이니 3막이니 하는 진화된 사회의 현실에 당황하며, 작년 9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과 개인의 미래, 가족 관계 등에 많은 혼란이 생기며 중심을 잡아 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나 진부하고 힘이 빠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다보니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퇴직자의 나이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연계형 중장년 인턴십’을 발견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LCD와 연관은 없지만 전공이 화학인지라 3D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오가메디라는 기업의 사업이 매우 흥미로워 과감히 지원하였고, 운이 좋게 인턴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턴 약 1개월 뒤 ‘아! 이것이 내 인생 60세 이후에 새로운 일이 되고 체인지업이 될 수 있구나! 운명인가? 아님 환상인가? 운이 좋고 열심히 하면 죽을 때 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인공장기 개발과 메디컬 의료 교육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오가메디에 근무하며 저의 인턴 생

활과 ‘내 인생 체인지업’의 가능성을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활동 참여하는 오가메디 기업은 인체의 장기를 정밀한 3D 측정공법으로 측정하고 국내 최초로 flexible full color 3D 프린터를 개발해 실제 장기와 유사한 부드러운 장기제품을 생산,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기 모델을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와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한국시간 밤 11시, 세계 최고 병원인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의 마이요 병원(MAYO CLINIC) 신기술담당 책임자(supervisor)에게 이 회사가 기술소개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통과 후 기술발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회사도 그랬지만 저도 긴장되고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턴이 된지 2주 정도 된 신참인지라 참여할 기대를 안했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서 참여했습니다. 입사 첫날, 대표이사의 제안에 흔쾌히 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모르는 의학용어와 기술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혼계도 들으며 소위 ‘뻥세계’ 일을 했습니다. 30년 전 LCD공장 현역시절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힘들었지만 내 몸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나왔고, 8월 29일 마이요 화상회의 끝나고 밤 12시가 지나 사무실을 나올 때도 에너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잠들기 전 곰곰이 지난 2주를 되돌아봤습니다. 비록 이 분야의 전문기술을 갖추진 않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이 조금씩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덜 피곤하구나!’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 세계 최고 병원 전문가와 의학 용어들을 이야기하며 발표하는 현장에 멤버로, 낮도 아닌 밤 11시 참여하게 된 것이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50플러스재단의 인턴십 담당자와의 인연도 절묘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 화상미팅에 참여한 책임 슈퍼바이저가 마지막 관문인 3차 발표를 위해 자료 원본을 요구해왔습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물론 제가 인턴십으로 참여한 이 기업은 이 도전뿐 아니라, 앞으로 기업에 꼭 필요한 시간과 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기관, 단체와 협력단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계속해야 할 도전과제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국가가 정부 단체와 대기업에 LCD 개발 관련 적극적 지원을 거쳐 2000년대부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등 첨단산업이 되었던 과거 우리의 사례를 떠올리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인턴 참여 기간 내 저의 직무는 생체 적합성 신소재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시장 분석과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첨단기술 개발의 글로벌 사업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예측해봤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기업의 미래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수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50플러스 중장년 사업 지원을 통해 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면서 60 이후 제 인생의 체인지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LCD만 연구하고 바라보았던 삶에서 바이오 인공장기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50+



나는 자이언트플라워 강사가 되었다



나는 창업주가 되었다



나는 드론 교육 자격증을 취득했다

02

여전히
배우고 자란다

체인지UP

#성장



“경력단절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감 되찾았어요”

| 최우수상
정혜선 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나요?

늦은 나이에 육아와 살림으로 체력은 달리고 시간은 부족한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일하고 싶다’는 갈망과 ‘일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를 지나던 버스에 붙어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울런4050’ 광고를 보게 됐죠. ‘40’이라는 숫자를 보니 제 나이도 포함되는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됐어요.

40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견하셨나요?

40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마련돼 있었죠. 심지어 비용도 들지 않았어요. 보통 일자리 지원 정책 하면 5060세대 이상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40대를 위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

하고 반가웠어요. 수강생들 중 제가 어린 축에 속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요.(웃음) 저는 직업전환 전문교육 중 하나인 ‘자이언트 플라워리스트 도전하기’라는 수업을 선택해 지난 7~8월에 걸쳐 한 달간 수업을 들었어요. 하루 4시간 가량의 수업 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집중해서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만들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재단의 도움을 받았나요?

‘자이언트플라워리스트 도전하기’ 수업을 마친 후엔 개인적으로 실크플라워 1, 2급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어요. 그 후엔 재단의 소개로 강북50플러스센터의 ‘내 삶에 힘이 되는 아카데미(내힘아)’ 프로그램에 지원해 첫 자이언트 플라워 수업 강사로 나서게 됐죠. 총 8회 수업 중 현재 6회까지 진행한 상태예요. 이 외에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울런4050 사업 중 직업교육 경비지원사업에 신청해 관련 수강료도 지원받게 됐어요. 해당 경비로 생화, 실내 가드닝 수업을 들으려 신청해놓은 상태예요. 불과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많은 일들이 정말 꿈같고 행복해요.

평범한 주부에서 자이언트 플라워 강사로 새 직업을 얻게 된 모습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늘 육아에 지쳐 있던 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성취감을 느끼고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니깐요. 또 이렇게 큰 꽃이 있냐며 신기해하시기도 하고요. 남편은 처음엔 제 영어 실력이 아깝다며 조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고 번역기도 잘 나오는 시대에 그보다 더 발전가능성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지금은 옆에서 제 모습을 보며 많이 응원해줘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전에는 체력적 한계, 나이 등으로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젠 늦지 않았다는 확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엄마가 되어보니 경력단절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엄마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일은 하고 싶지만 풀타임으로 일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엄마들이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할애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자이언트 플라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룹으로 활동한다면 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확장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40대라는 나이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첫 걸음을 내딛은 것처럼,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도전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길 바라요. 50+



마흔, 또 다른 이름의 기회

마흔, 항상 늦었다고만 생각했던 제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40대 직업전환 전문교육'을 통해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38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곧바로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죠. 당연히 육아를 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입덧과 체력문제로 더 이상 영어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잘 운영하던 교습소를 급하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수 년 동안, 영혼까지 갈아 넣은 저의 전부였던 교습소를 처분하고 그렇게 첫째를 출산했습니다. 첫째가 5개월 되던 때 둘째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저는 한순간 연년생 예쁜 두 딸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후의 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둘째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친정집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저히 딸리는 체력으로 첫째를 케어하면서, 둘째까지 건강하게 출산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둘째 딸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그렇게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에 지쳐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면서도 항상 갈급함이 있었는데, 갈급함에 더해 불안감과 조급함이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감을 잃은 것 같은데 어찌지? 지금 당장은 풀타임으로 일하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은 답답하지만 결국 몸은 매어있어 움썹달짝 못하는 일상을 살던 중, 버스에 붙은 '서울런4050'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다가 어느 날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저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기뻐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이가 많은 것도 좋은 거네'하고 혼자 씩 웃었습니다.

교육비용이 저렴했지만 그 때는 그 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수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플라워리스트 도전하기' 수업이었습니다. 이날따라 '도전'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 도전해보자! 해봐야 아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용기 내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4시간 수업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안가고 집중해서 꽃 한 송이, 꽃 두 송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꽃이 완성되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엇! 재밌네. 나 좀 잘하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예전부터 꽃을 좋아했습니다. 꽃을 여유있게 즐길만한 상황이 아니기에 저의 관심을 항상 물어버리곤 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나 꽃 좋아했지? 배우지 않아도 꽃꽂이도 잘하고 항상 배워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의 소리가 그제야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 후 커뮤니티도 결성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분들과 교류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싶었고요. 수업을 들은 후에는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할 수도 있고, 방과 후 학교수업이나 부업으로 꽃을 제작해 판매나 행사 설치까지 하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설렐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이언트플라워에 대해 더 관심 갖고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노원50플러스센터에 강의를 개설하며 강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이후로 노원과 강북50플러스센터에 강의가 추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전사회에도 참여하는 엄연한 '자이언트플라워 작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과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답니다.

돌아보면 저는 항상 마흔이라는 나이가 늦은 줄로만 여겨지고 막연한 두려움과 조급함에 힘들었는데요. '서울런4050'에서는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첫 걸음마를 떼는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인생 선배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전받고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늦게 결혼하고 사람들은 노산이라고 하는 나이에 딸아이 둘을 출산했습니다. 이런 '늦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성숙한 인생'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장점일 수 있구나, 나도 이런 나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구나,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를 다시 살린 '서울런4050' '40대 직업전환 전문교육'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헛된 꿈을 꾸는 철없는 아이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요. 저는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성공 스토리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저냥 외치는 힘내라는 말이 아닌, 제가 진짜 죽어라 뛰어 넘었던 허들을 쉽고 재밌게 뛰어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인생이 기대되고 설레는 요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런4050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을밤 저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20대나 꾸는 줄 알았던 꿈, 이 나이에 갖게 됐어요”

|
우수상
김연수 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지인 중에 한 명이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의 도움으로 공간을 대여해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됐죠. 이후 홈페이지를 드나들며 관심 있게 살펴보다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중장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지가 올라왔기에 참여를 결심하게 됐어요.

평소 창업에 관심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원래 모 사립대 실용음악과 교수였어요. 2018년경 교수직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이민길에 올랐다가 사정이 생겨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죠.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평소 세 아이를 키우며 제가 실천해온 육아법을 토대

로 양육 코칭을 시작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무자본 1인 기업 ‘미타임캠퍼스’가 탄생했어요. 이후 5년 가까이 800여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했고 크라우드펀딩, 기부 등을 실천하며 커뮤니티를 유지·발전시켜 왔어요. 하지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부나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죠. 때마침 ‘중장년 창업 컨설팅’이 눈에 띄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존에 창업을 한 상태였지만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했던 건가요?

맞아요. 미타임캠퍼스는 수입도 꾸준하고 별도의 홍보도 필요치 않을 만큼 인원 모집도 잘 되어왔어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도 써야 하고, IR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더라고요. 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방법을 몰랐거든요. 이런 도움을 받고 싶었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앞서 말한 사업계획서, IR 관련 정보는 물론 기업 소개를 위한 10분 스피치 하나하나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컨설팅 이후에는 추가 피드백과 컨설팅이 반복됐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한라이프가 함께 진행하는 4050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얻게 됐죠.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미타임캠퍼스라는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고, 회사 또한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다음 목표는 뭔가요?

회사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협동조합이 좋을지, 사회적 기업이 좋을지 막막했는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소셜 벤처가 맞겠더라고요. 소셜 벤처로 성장해서 미타임캠퍼스의 양육 코칭 프로그램인 ‘미라클 베드타임’을 더 많은 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요.

40대에 만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은 김연수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20대 청년이나 꾸는 줄 알았던 꿈을 이 나이에 가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꿈은 동력이 있어야 실현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동력을 준 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기도 했고요. 서울런4050 사업은 중장년 하면 떠올리는 5060세대뿐만이 아닌 40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40대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50대에는 훨씬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100세 시대에 남편과 서로 바톤터치하면서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0+



“내가 먼저 꿈꾸고 3040 엄마들의 꿈이 되리라”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

교수로 재직했던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 입구에 붙어있던 글이다. 수백 번 복도를 지나다녔으면서 한 번도 이 말을 나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요즘 이 문장이 자주 생각난다. 40대 후반, 한 번의 퇴사를 경험한 내가 이제 진짜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후배 엄마들의 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는 중이다. 꿈은 20대 청년만 꾸는 게 아니었다.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2018년 가족과 이민 길에 올랐던 나는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한국에 다시 돌아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안식년을 내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나는 사표를 선택했다. 사립대학교 작은 학과에서 안식년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 아이의 엄마가 되도록 출산도 방학 때하고 단 한 번도 일을 쉬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2019년 봄, 내가 다시 돌아 갈 직장이 없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바로 그 해, 창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 말이 좋아 창업이고 1인 기업일 뿐, 그냥 고군분투하며 직업 전환을 시도하는 프리랜서였다. 나는 ‘미라클 베드타임’(이하 ‘미베타’)을 함께 실천하며 엄마 자기계발까지 시도하는 엄마 성장학교, 미타임캠퍼스 소속이다. 미베타는 수면 시간에 기반 한 육아 기준과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해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이다. 가정에 기준이 생기면 육아가 쉬워진다. 아이에게는 충분한 수면과, 정해진 시간에 잠자는 습관으로 시간의 개념과 안정감을 가르친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행복하게 재우는 루틴을 통해서 아이들의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정서적으로 편안한 아이로 자란다. 아이들이 잘 자라야 엄마의 삶이 윤택하다. 이게 바로 미베타다.

미베타가 되는 엄마들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관심이 본인에게 집중된다. 온전한 자기계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우린 이제 너무 긴 인생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아이들만 키우다가 갱년기 왔다고 우

울해 하며 인생 다 살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엄마가 자기계발을 시작하면 엄마 삶에 생기가 돈다. 엄마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아이의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가족 선순환이 일어난다.

내가 미라클 베드타임 코칭을 시작했을 때 나는 코칭을 받으시는 분을 ‘시제품’이라고 생각했다. 코칭 만족도가 제품의 완성도라고 생각했다. 홍보로 사람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서 바이럴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말고 코칭 아웃풋과 코치로서 나의 성장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루하도록 고요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800, 1300, 700, 4.97, 10, 2000, 0’ 미타임캠퍼스를 세우고 내가 만난 숫자들이다. 800(명)은 내가 지난 5년간 미라클 베드타임 코칭을 했던 가정(엄마)의 숫자이다. 1300(명)은 코칭받은 엄마의 아이들이다. 700(만원)은 지난 3년간 우리 미타임캠퍼스가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돈이다. 4.97(점)은 코칭 받고 스마트 스토어에 남겨준 평점 5점 만점에 대한 만족도다. 10(분)은 되다노트 텀블벅 펀딩 100%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2000(만원)은 미타임캠퍼스 스마트스토어에 가장 매출이 많았던 어느 달의 매출이다. 0(%)은 우리 미타임캠퍼스 커뮤니티 엄마들의 이탈률이다. 단톡방이 피곤해서라도 코칭을 받았다면 나가야 정상일 텐데, 5년이 넘도록 나가는커녕 우린 이제 자기계발까지 함께하는 온라인 ‘찐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중이다.

2023년은 나에게 특별한 해가 되었다. 나와 길게는 5년을, 짧게는 몇 달을 함께 한 엄마들의 성장이 눈부시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커뮤니티의 힘이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엄마들의 성장이 단순한 우상향 그래프를 띄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 함수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제 타이밍이 왔다 싶었다. ‘이제는 1인 기업가로 부모교육(코칭)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고지에 도달했다. 직장 내 대부분의 직원이 부모다. 가정이 안정적일 때, 부모인 직원들이 직장에서 높은 업무효율과 성과를 낼 수 있다. 시제품(미라클 베드타임 코칭효과)이 이정도 완성되었으니, 이제 정부나 기업의 도움을 받고 싶다.’ 마음 속에 간절히 들었던 생각이다.

이런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우연히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창업지원 컨설팅’ 공지를 보았다. ‘중장년’이라니, 이름이 살짝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절실하게 컨설팅이 받고 싶었다. 미타임캠퍼스는 실제 수입도 꾸준하고,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모집도 잘 되었지만, 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계획서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진심 다해서 엄마들을 코칭하고, 만나는 가정마다 기적 같은 변화가 있도록 정성 쏟았던 것을 알아보신 결과?’ 서류통과 소식을 들었다. 처음 10개 회사 안에 들었던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는데, 그 다음 4개 회사 안에 또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한라이프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중장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지금까지 내가 해 왔던 노력들은 주먹구구에 가까웠지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컨설팅 덕분에 나는 선명한 지도를 그리게 된 것 같다. 지도가 손에 쥐어지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흩어져 있던 구슬이 꿰어진 느낌이다. 50+



“배움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
우수상
허화정 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5년째 서울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정보에 빠른 편이죠. 집 근처에 위치한 성북50플러스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개소 이후 센터를 열심히 드나들며 수어 교육을 수강하거나, 당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참여해 디지털 엽서 만들기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지난 6월 ‘서울런4050’ 내 직업전환 교육의 일환인 ‘드론 교육지도사 2급 도전하기’ 과정이 센터에 공지로 올라왔어요. 평소 관심 있던 분야라 주저 않고 지원했죠.

여러 교육들 중에서도 드론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젊었을 때 학습지 교사를 30년 넘게 했어요. 50대가 된 후로는 예전엔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웹디자인을 공부해서 웹디자인 강의도 하고, IT 강사가 돼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해봤죠. 워낙 적극적인 성격이라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편인데, 드론 자격증도 제가 꼭 따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웹디자이너로서 사진, 동영상 촬영할 일이 많다 보니 드론 자격증이 있다면 커리어, 일자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이 진행됐어요. 이론 중심의 온라인 수업을 마친 뒤엔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어요. 또래 분들도 있었지만 젊은 분들도 많았기에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이 수업을 선택한 게 잘한 게 맞나?’ 하는 걱정도 앞섰어요. 드론을 조립하고 분리하는 실습 시간에는 마음처럼 되지 않아 조바심도 났지만, 동기들과 강사님의 도움으로 10회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죠. 창피하고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배움의 열정으로 극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자격증 취득이 일자리 전환 또는 커리어에 있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예전부터 4차 산업 일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강사 활동을 희망했기에 4차 산업과 연관된 웹디자인, IT 관련 자격증 등을 따왔죠. 여기에 드론 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까지 추가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교육을 마친 뒤에 한 드론 교구 업체에 이력서도 제출했으니까요.(웃음)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난 수업을 복습하며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드론 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에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조종사라는 저의 어릴 적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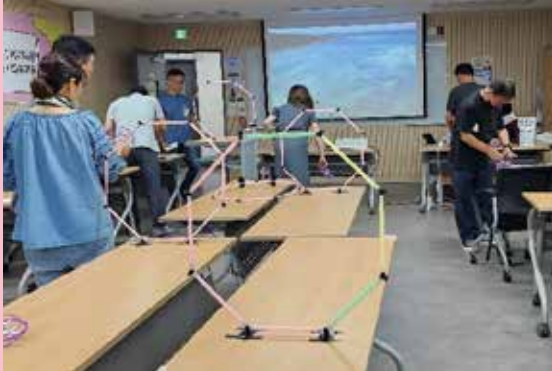
50대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을 만난 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꿈을 키우는 곳, 자기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 경력단절을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드림넥서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성북50플러스센터를 오가며 배움의 기회도 가졌을 뿐 아니라 몸까지 건강해졌으니까요.

주변 또래 분들에게 서울런4050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요?

강추합니다. 자칭 성북50플러스센터 홍보대사예요.(웃음) 제 추천을 통해 센터에 방문한 사람만 50명이 넘거든요. 교육경비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4050’ 교육몰에 방문하면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죠. 취업 컨설팅, 멘토링, 직업교육 경비지원 같은 사업을 잘 이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면 내 능력을 또다시 다른 시니어들을 위해 활용하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50+



“50년 만에 자유날개를 달았다!”

어렸을 때 꿈은 파일럿이었다.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연에 흠뻑 젖어 살았던 나는 맑은 하늘을 자주 보았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파일럿이 되어 세계여행, 우주여행 하며 승객도 태우고 싶었다.

여자이고 신체조건도 좋지 않았던 나는 기회와 여건이 되지 않아 늘 마음속 꿈만 간직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신체조건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꿈이 이루어졌겠지?’라고 혼자 생각하는 ‘마음만 파일럿’이었다. 하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서 번지점프, 행글라이더, 짚라인, 비행기, 등산, 초고층 오르기 등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6년 전 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웹디자이너로 직장생활 30년을 마무리했다. 평생 학습을 좋아하는 나는 50플러스센터, 주민센터, 관공서 등을 다니며 수업을 들었다. 퇴직 후에도 웹디자이너, IT강사로 가끔 강의도 하며 학창시절만큼 배움에 열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드론과 AI에 관심이 많았던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드론 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을 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강신청을 했다. 웹디자이너로 사진이나 영상물 제작을 하는 나는 상공촬영을 하고 싶었고, 드론을 날리고 싶었고, 이것을 일자리로 연계하고 싶어서 자신 있게 강의실 문을 열었다. 40대 5명과 50대 5명, 수강생이 10명이라고 듣고 갔는데 40대 특화 직업전환 교육과정이라 그런지 모두 젊고 잘할 것 같았다. 웬지 나는 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앞서 잘 선택했는지 가우뚱하며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드론을 받고 처음으로 조종기 조립, 분리를 했다. 드라이버 사용부터 부품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생각과 현실의 차이는 꽤 컸다. 다른 수강생들은 푹푹딱딱 잘 하는 것 같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웬지 고급 기술자들 사이에 낀 초짜 수강생 같았다.

다행히 동기들과 강사님의 도움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10회차 과정을 해냈다. 드론(버거드론, 축구드론 등) 분리, 조립, 조종기 조립, 페어링, 미세조종, 호버링, RC자동차 제작과 조종, 드론코딩, 스마트폰 조종, 앱설치, VR체험, 드론촬영, 드론 장애물경기, 드론축구 등을 배우다보니 시간이 확실히 지나갔다.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은 배움의 열정으로 극복했다. 드론을 조종하고 비행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100% 출석했다. 동기들과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서로 도와가며 드론을 조종하고 게임하고 만들기도 하며 한주 한주를 소중하고 즐겁게 보냈다. 이밖에 서울런4050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고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을 취득했고 과정 중 드론 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AI교육, 강의 계획서 만들기, 커리큘럼 만들기 등 지도자 역량을 강화했고, 드론 교구재 업체에 이력서도 제출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성실히 배웠고 일부 꿈을 이룬 것이다.

드론 수업을 들으며 잊혀지지 않는 날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제현절, 아파트 단지 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축구 드론을 연습하던 날이다. 드론이 하늘 높이 날더니 갑자기 급하강했다. 상공 7m 정도 반송 근처에 떨어졌다. 폭발이라도 할까 두렵고 난감했다. 창피하고 미안했다. 갑자기 비까지 내렸다. 부슬부슬 비 맞으며 마음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생활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비 오는데 도움을 청해서 더욱 고개를 숙였다. 빗속에서 사다리를 두 번 타고 드론을 찾았다. 드론을 찾아 안심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생활지원센터에 너무 미안해서 거듭 사과했다. 다시는 단지 내에서 드론 비행을 안한다 말하고 비타500 두 박스 사드렸다. 안전의 중요성을 삼키며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그날 이후 드론 연습 장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한다.

두 번째는 나만의 드론을 만들었던 날이다. ‘아마존공주 드론’이라 부르며 내 사진을 붙이고 날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드디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 감격에 감동에 심장이 마구 뛰고 벅차올랐다.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 뿐인 드론이 눈앞에서 날고 있다니! 내가 날고 있다니! 어깨에 자유 날개가 짝악 펼쳐졌다. 50년 만에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이루어졌다. 갑자기 눈이 커지고 시력이 좋아진 것 같았다. 날아다니는 드론과 내 모습이 또렷이 잘 보였다. 정말 많이 웃었다. 기쁘고 신나서, 나도 할 수 있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기분이었다. 환호와 함께 만세를 불렀다. 지구를 돌며 우주여행을 신나게 하고 돌아왔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드론 수업이 종강한 며칠 후, 수업을 운영했던 박용준 컨설턴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후 드론교육지도사로서의 계획과 필요한 도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드론 교육 기회도 주고 사후 멘토링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신 성북50플러스센터와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에 감사드린다. 나 같은 중장년들에게 경력전환 기회와 일자리까지 연계해주는 관계자 분들과 시스템이 참 좋고 든든하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과정이다. 내가 받은 기쁨, 즐거움, 희망,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다. 더 나아가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역량을 강화해서 지도도 하고 싶다. 50+

배움이 만든 변화

저는 2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마케팅에 대해 늘 고민했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데 마케팅은 늘 저와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처럼 대부분의 마케팅이 SNS를 통해 이루어질 때, 정보력이 없는 나이 든 원장들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기술과 가게를 홍보하고 알릴 수만 있다면 좀 더 재미있게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의 일부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내가 직접 하자니 젊은 친구들처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느꼈던 중, 손님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곳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검색해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강좌들이 일하면서 긴 시간을 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한데, 저와 비슷한 연령인 분들과 함께 배운다면 의지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처럼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니어들이 가진 강점인 인내와 끈기로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부터 숏츠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3단계까지 무사히 완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부분이 바로 이 선생님들입니다. 저희의 눈높이에 맞게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팅까지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런 분야는 젊은 친구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족하지만 배운 대로 하나하나 작품을 올려보니 정말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십이 넘어가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의욕도 사라져갔는데, 교육을 들으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지금 배웠던 과정들을 시간이 허락하면 세분화하여 더 자세하게 듣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가진 미용기술과 마케팅을 접목해 관련한 교육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항상 불안하고 대안도 없었는데, 이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50플러스를 사랑하는 이유는 첫째, 저의 잠자고 있던 열정을 다시 찾아줬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워야한다’,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는 말처럼 교육이라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게 많이 떨리고 낯선데,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고, 방향 또한 잘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만으로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를 부정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기에는 급변하는 시대가 무섭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존감,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면서 자아실현을 이룬다면 균형 잡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플러스재단은 삶에 대한 자세를 변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전의 저는 부정적인 마인드와 불안, 초초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긍정적이 되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막연했던 미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꿈을 꾸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50플러스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움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다른 분들도 삶의 한 부분에 분명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0+

생각을 넘어 발걸음을 옮겨라



2019년 6월, 49세의 나이에 26년간 몸담았던 직장(사립대학교 교직원)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때 알았다. 퇴직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박수 받을 때 퇴직하고 싶다는 욕망은 늘 갖고 있었지만 삶의 무게 때문인지 퇴직이 계속 미뤄졌었다. 21년간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직장생활을 한 탓일까? 집보다는 일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점점 일욕심이 많아졌다. 1999년에 첫아이를 낳고 육아휴가 2개월 중 한 달만 몸조리를 하고 종로에 있는 HTML 학원에서 한 달간 일했다. 2001년 둘째아이를 낳고는 육아휴가 3개월 중 첫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달만 몸조리하고 또다시 포토샵을 배우기 위해 종로로 향했다. 그 이후에도 퇴근 후 야간시간을 이용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강남에 위치한 직업상담협회를 6개월간 다녔다. 이뿐이었을까? 참으로도 억척스럽게 배움을 쫓아 다녔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여성으로는 첫 팀장을 맡게 되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갈수록 업무도 점점 과중해졌다. 그러던 중에 어렵게 시

어머니와 분가를 결정하게 됐고, 분가 1년 후 마음 편히 명예퇴직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전투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던 탓인지 퇴직이후 더 이상 일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다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에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퇴직하자마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이후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니어케어강사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다. 연달아 유튜

브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로 퇴직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동글이여사 TV)을 개설해 지금까지 즐겁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다른 일들로 활발히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구독자는 현재기준 4,160명에 이른다.

퇴직 후 50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치열하게 오랫동안 일했던 터라 일보다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가 인터넷으로 예약 후 북부캠퍼스로 상담하러 달려간 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보람일자리는 내가 찾고 있던 사회공헌활동이었다.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상담일을 해보기 위해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서초구청 내에 있는 센터에서 온 좋게 사회공헌활동을 3개월간 경험하게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다신 일하고 싶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세 포가 내 맘 속에서 툭툭 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2022년 계약직으로 단기간(9개월) 근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세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줬다. 서울시50플러스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결실을 기대하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의 텃밭이요, 제2의 인생을 향해 가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이 되어 주고 있다.

일과 병행해서 공부해왔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현장실습을 2023년 1월에 힘겹게 마쳤다. 그 이후에도 난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육을 위해 또 다른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중랑미디어센터에서 시행하는 미리캔버스 수업과 OBS 수업, 그리고 노원50플러스센터의 챗GPT 교육, 성북50플러스센터의 스마트스토어를 수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온라인 창업을 드디어 하게 됐다. 올해 6월 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7월 10일 오픈(후백 HU100)하여 지금 열심히 새로운 일을 접하며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새로 시작한 사업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새로움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내겐 설렘과 기대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작할 수 있었다. 난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100세 시대에 50대라면 나는 청년인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난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설렌다. 내 안에 숨겨졌던 나, 이제껏 나를 훈련시켜 온 많은 과정들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어디선가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 혹여 그것이 남들 눈에 띄어난 일이 못될지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싫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져 있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은 생각을 넘어 발걸음을 떼는 것에서 부터 기회는 열린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토닥이며 용기를 갖는다. 중장년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센터로 발걸음을 옮겨 문을 두드리 보시라. 희망의 길은 열릴 것이다. 50+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설계하는 곳

제작년 이맘때였을까? 내 발로 직접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를 방문했다. 20여 년 동안 창동에 거주하면서 동북아 중심지로 창동역의 변화를 느끼던 중이었다. ‘창동 아우르네’라는 멋진 건물과 인생후반의 생애설계를 돕는 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에 대한 호기심에서 생긴 인연이 내 삶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곤 당시엔 상상하지 못했다.

전직 미술교사로 일한 나는 패션 소품 디자인사업이 늘 관심분야였다. 늦은 나이임에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얼리 디자이너와 공예 작가로 활동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사업화를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린지 거의 4년여,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무수한 경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느끼는 데다 코로나로 모든 게 침체된 듯한 상황에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마침 창동역에 위치한 공공미술 전시관에서 동료 공예작가들과 작품 전시 기회가 있어서 참여했다. 주민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었다. 물질이 주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을 느끼는 나를 발견한 이후에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졌다. 그리고 50+상담센터를 찾게 되었다.

첫 날 상담한 내용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은 상담사님은 긍정적인 격려의 말과 함께 공유사무실에 관한 내용과 나에게 맞는 일인 강사직을 권유해주셨다. 나의 경험과 역량을 가치 있게 발휘해 볼 수 있는 일이라니! 그렇게 북부캠퍼스에 공유사무실 입주를 시작으로 다시금 나의 생애설계를 재정비하는 첫걸음을 떼었다. 북부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강사제안 교육콘텐츠 공모”에 선정되었고 마침 강사들을 위한 교육인 50+강사아카데미 심화교육이 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진행되어 거의 모든 교육을 신청해서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사의 역량강화부터 브랜드 기본

지식, 운영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듣는 교수님의 피드백, “강사님은 진짜 전문가이십니다!”라는 말씀이 큰 힘이 됐다. 그때 이후 중장년 대상자를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

나는 미술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았고, 단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많은 수강생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때 강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중장년 세대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관심과 욕구, 그리고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벗어나 직접 수강생으로 십여 개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수강생 입장을 이해하며 지금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렇게 수강생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아동 대상의 미술교육수업과 다양한 미술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안한 프로그램은 한두 곳 빼고 거의 선정이 되어서, 여러 50플러스센터와 연계된 기관까지 많은 수강생들과 소통하면서 50+우수강사로도 선정되었다. 지난 4월에는 과분하게도 센터에서의 수업 장면과 캠퍼스의 상담 장면이 담긴 <KBS 생생정보통> ‘인생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편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업의 방향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중부캠퍼스에서 진행한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무려 184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과정이었다. 초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플러스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강남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강사진과 교육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창업 장학금도 수여되는 좋은 기회였다. 현재까지 중장년 세대와 실제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아이템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 데모데이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제1호 고령친화산업 DX 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까지 주어져, 창업 아이템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게 공유사무실에 입주하고 난 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다양한 맞춤 정보를 전달해주는 50+상담센터의 컨설턴트님도 늘 힘을 북돋아 주시곤 한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50플러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컨설팅, 공유사무실의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과의 시너지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낀다.

나는 50플러스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뒤늦게 아시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고 놀라곤 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는 나만의 브랜드 모토와도 맞고,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서울시50플러스. 나의 작은 성공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한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했을 때 자신의 삶의 커다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50+



디지털드로잉 작가로 N잡러 도전하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올해부터 40대 중장년의 인생 설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40대인 저는 작년까지 청년 또는 중장년 지원 사업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마냥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고 있는 40대 야말로 교육이나 직업전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런4050'은 이러한 요구를 잘 반영한 사업이며, 40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현장학습이 함께 적용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40대 특화 직업전환 교육과정으로 리(Re)스킬링 파이프라인 '디지털드로잉 작가 도전하기'에 참여하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참여한 교육은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40대 서울시민이 디지털드로잉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는 예전부터 고민해온 인생 후반기의 진로설계에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고 전공과 취미를 살려서 N잡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야간반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직장인으로서 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육 참여를 위해 연차를 계속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소해주었고, 생각보다 수업기간이 길지 않고 1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수업횟수가 청년이었을 때와 달리 체력의 한계를 종종 느끼게 되는 중장년인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온라인 강의를 보며 혼자 시도해보았던 디지털드로잉은 솔직히 혼자서 익히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꼭 필요한 교육 이었고, 학원을 다니기에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시도를 해보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려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번 기회에 디지털드로잉으로 굿즈 제작까지 결실을 맺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수업에 참여할 때는 판매 시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림 실력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냥 경험을 해보았다는 단계로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창출까지 해보자는 적극적인 마음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이나 해보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7월부터 시작한 수업은 12회 차까지 있었습니다. 6회 차 수업을 진행했을 무렵에는 퇴근 후 저녁 9시까지 수업을 듣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 10시 무렵이 되는 상황이 버겁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회 차부터 저작권 등록과 수익창출을 위한 판매루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되겠어?'하는 불신과 동시에 조금씩 흥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N잡러'는 일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저 저에게는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나도?'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거듭될수록 야간 수업은 체력적으로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쯤은 결석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퇴근 후 그냥 집으로 향하려 하다가도 굿즈 제작까지는 해보자라는 마음에 50플러스센터로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 수업은 굿즈 제작이나 결과물 도출까지가 학습의 종료였기 때문에 그림수업이 없는 마지막 수업은 불참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수업일 전날 판매 활동 수업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을 때도 수업 참여를 고민했습니다. 판매활동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날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뼈뺌하게 앉아 건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루한 강의가 시작 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수업시간에 강사님과 함께 굿즈 판매, 크리에이터 굿즈샵인 '마플샵'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셀러 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키링, 그림톡, 마스크테이프 등 다양한 굿즈 형태로 판매 게시까지 하였습니다. 판매 게시한 이미지를 구매자가 결제를 하면 굿즈 제작부터 구입까지 '마플샵'에서 진행을 해주고 셀러는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에 대한 수익이 창출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시도했다면 한참 헤매거나 중도포기 했을 과정을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실습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과는 차별화된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장 구매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목표의 최종 목적지까지 달성했고, 열심히 그림 실력을 쌓는다면 나도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런4050의 40대 특화 직업전환교육은 40대 후반에 접어들어 길어야 10년 뒤에는 금융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노인자살률 1위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1인가구로서 수입이 없다면 그러한 통계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제 자신이 변화하는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품이 판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기대감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의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작은 삶의 변화가 큰 물결이 되어 저의 남은 인생에 활력이 되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50+

나는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되었다



나는 학교안전지원단이 되었다



03

내가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CHANGE업
#변화



“평생 연구밖에 몰랐던 제가 창업을 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
최우수상
임진화 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미술치료사입니다. 동료 연구위원들과 오랜 연구 끝에 ‘치매예술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해당 연구가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 채택돼 국가의 지원 하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치매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분들이 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죠. 현장으로 확산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 수강자 분께서 ‘이 강의가 50플러스센터에 개설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었나요?

50플러스포털에서 검색만 했을 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 영등포50플러스센터 직원 분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죠. 바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문의를 했고, 창업을 위한 공간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재단의 문을 두드려 2022년 3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공유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공간을 자원받은 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예술케어의 현장 확산을 도울 창업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엔 연구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 머리를 맞댔 만한 공간조차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마련한 후 창업지원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매예술케어연구소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하지만 평생 연구나 강의만 해왔던 저는 회사만 설립하면 다 되는 줄 알았을 만큼 창업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마다 멘토로 나선 창업 컨설팅 전문가께서 특허, 출판, 판권 등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또 올해는 ‘서울런4050’ 정책이 시작되며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6주 과정의 창업 교육을 추가로 받아 사업의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고 조직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았죠.

이젠 어엿한 회사 대표로서 새 목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공유사무실을 얻음으로써 창업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있지만, 입주해 있는 전혀 다른 분야의 창업자분들을 알게 된 것도 좋았어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협업의 기회도 찾게 되거든요. 일례로 가장 최근에는 동영상 제작자 분과 치매 바로 알기 영상 제작을 논의 중에 있어요. 가까운 목표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치매예술케어를 알려나가는 것이에요. 최종 목표라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치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치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완성하고 싶어요.

50대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창업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나이에도 전국을 누비며 강의를 하러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며 주변에선 대부분 걱정과 만류를 했어요. “무슨 나라라도 구하냐”면서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이제 그만 손을 떼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났죠. 이곳에서 만난 많은 중장년 분들이 여전히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어요. 또 모르는 건 언제든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재단 및 캠퍼스 직원들의 도움 덕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제 오래된 친구 같아요.

주변의 또래들에게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나이가 들고 주부로 산 지 오래 됐다고 해서 숨은 재능을 켜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나도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도움의 받길 추천해요. 제 또래들은 보통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50+



“미련한 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

저는 56세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사업이 현실이 된 이야기,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저의 행운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미술치료사입니다. 중학교 상담교실, 여성이주민지원센터 등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미술치료를 15년 넘도록 진행하며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15년, 노인 관련 협회에서 함께 노인 복지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어 노인을 만난다는 것은 제게 큰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렘은 잠시, 노인 복지현장은 제가 밖에서 막연히 보았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관련 시설이나 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론 성과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내용이나 체계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치매 현장을 직접 돌며 살피고 연구를 계속하던 중, 저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무엇부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인지활동의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69편의 논문과 현장의 사례를 통해 1년 반 동안 10명의 연구위원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한 끝에 치매에 '예술'로 접근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고 현장에 계신 치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의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기에 치매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역, 장소, 등급,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치매 어르신들과 보호자를 직접 만났습

니다. 그들의 욕구를 귀 기울여 듣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설과 재가 어르신들을 만나 직접 시행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예술을 접목한 내용이 최종 선정되었고 '치매예술케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원에 저희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2018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교육한지 7~8년이 되다보니 '치매예술케어'를 알게 되신 분들의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게는 현장의 확산을 위한 회사가 필요했고, 현장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육을 받으시던 한 분이 “이 강의가 '50플러스'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라 메모를 해두었다가 집에 돌아와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저희에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문을 두드리 3월 남부캠퍼스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나 강의만 해오던 저는 회사만 차리면 다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도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사무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저의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부캠퍼스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제게 캠퍼스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셨고, 저의 고민을 해결할 '창업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알려주고 전문가와의 사전진단을 주선해주었습니다. '창업지원컨설팅' 전문가는 제가 궁금하고 모르는 일에 대한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차분하고 꼼꼼히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특히 저의 연구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자 많이 노력해주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23년 3월, 저는 (주)치매예술케어연구소를 설립했고,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는 홍보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관해 컨설팅을 받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2023년 5월에는 중앙치매센터, 서울광역치매센터, 구로구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함께 공유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컨설팅 전문가의 소개로 만난 협동조합과 공모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저와 저희 연구진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가 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공유사무실에 계시고, 사업으로 얼마든지 협업을 할 수 있으며, 깊은 고민과 따뜻한 애정 어린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힘이 납니다. 더 감사한 일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늘 찾을 수 있는 '50플러스'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50+



“이 나이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우수상
구두갑 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저는 35년 동안 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60대 가장입니다. 퇴직하면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막연한 기대감은 한 달 만에 무너졌지요. 수십 년간의 직장생활이 몸에 배어 아침엔 저절로 눈이 떠졌고, 이렇다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꽤 괴로웠어요. 그 무렵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펼쳤는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보람일자리’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어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보람일자리는 제가 딱 필요로 하던 것이었어요.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설명이 쓰여 있었는데, 이름도 사업 내용도 마음에 쏙 들었죠. 공직에서 은퇴하면서 제 전공인 안전 분야에 있어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마땅한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가치관과 딱 맞는 보람일자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딸에게 신이 나서 보람일자리에 대해 설명했던 게 떠오르네요.

학교안전지원단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요. 운동화를 신을 때부터 신이 나죠. 학교안전지원단은 초등학생들의 등교길 교통안전 지도,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해요. 등교길이 1차선 도로인 데다 이동 차량도 많아 특히 교통안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인도 하고 있죠. 교장 선생님, 각 학년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 안전 지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매일 초등학교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지난 5월 스승의 날엔 뜻밖의 선물도 받았어요. 고사리 손으로 ‘힘드실 텐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저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은 손편지도 받았거든요. 정말 고맙고 힘이 됩니다. 두고두고 주변에 자랑할 만큼요.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요. 현업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만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런4050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수렁 속에 있었을 지도 몰라요. 중년의 나이에도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수명초등학교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아저씨가 이렇게 행복하단다!”(웃음) 50+

“나는 68세 현역입니다”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한 아직 현역이다. 그렇다. 나는 68세 현역이다.

어느 봄, 우연히 신문을 넘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사를 읽게 됐다. 그 기사에서 ‘보람일자리’라는 단어가 내 눈에는 어쩌나 크게 보이던지 신문 속에서 그 단어만 마치 폰트크기가 50pt 정도 되는 것처럼 눈에 쏙 들어왔다. 부랴부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름도, 사업내용도 마음에 쏙 들었다. ‘보람일자리’는 보수와 상관없이 은퇴 후 내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던 내 가치관과도 맞았다. 사업설명만 읽었을 뿐인데 딱 맞는 내 자리를 찾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나는 평생 공직자로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을 해온 공무원이었다. 35년의 시간을 보내고 날 종던 어느 날,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고 나면 훨훨 자유로울 줄만 알았는데 그 막연한 기대감은 퇴직 한 달 만에 무너졌다. 30여 년이 넘는 직장생활을 기억하고 있던 몸이 어쩌나 부지런한지 출근을 하던 그 시간이면 눈이 저절로 떠졌다. 몸도 마음도 이렇게 건강한데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괴로웠다. 좋아하던 등산도, 독서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저런 활동을 해봤지만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원 같아 속이 상했다. 그렇게 나는 수렁에 빠졌다. 깊은 우울감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던 그 날 우연히 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사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있던 나는 좋은 보약이라도 지어 먹은 것처럼 다시 활기를 찾았다.

얼마 후 ‘학교안전지원단’ 공고가 올라왔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딸아이에게도 보람일자리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대화를 나눴다. 안전이라면 평생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왔으니 안전관리에 대한 나의 전문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은가! 특히 학교 안전이라면 현장 점검이나 교육도 한 적 있어 더욱 자신 있었다. 공을 들여 신중하게 지원서를 작성했다. 30여 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학교안전지원단으로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수차례 되뇌었다. 1차 서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연습도 부단히 했다. 오랜만에 면접이라 긴장도 꽤 됐다. 그리고 얼마 후, 합격 통보를 받고 어쩌나 기뻐던지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에게까지 축하를 받았다.

나는 요즘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선다. 학교안전지원단으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지도
를 비롯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등굣길이 1차선 도로인데다가 차량 이동도 많아서 특히 교통
안전에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다.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시설확인도 학생들 질서유지도 함께한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과도 긴밀하게 상의하여 학생
들 안전 지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시설 점검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뜻밖의 선물도 받았다.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적은 감사편지에는 ‘힘드실
텐데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던지 여전히 두고두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자랑거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보
람일자리로 일을 시작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얼굴이 밝아 보인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다. 밝을 수밖에
에! 나는 지금 경력직 사원으로 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면접을 보던 날, 면접관이 재취업을 해도 될 텐데 보람일자리에 지원한 이유를 묻기에 퇴직 후 스
스로 겪었던 어려움과 함께 그간 꿈꿔 왔던 앞으로의 내 계획을 이야기 했었다. 이제 금전적인 보상보
다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돌이켜보면 퇴
직 후, 우울감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준 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다. 보람일자리를 통해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 받고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장년들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보람일자리를 한번 살펴볼길 바라는 마음
으로 이 수기를 쓴다.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퇴직 후 어려움을 겪는 또래 장년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나처럼 우울감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장년이 되었지만 빠
르게 바뀌는 세상을 회사 밖에 서서 오롯이 마주하는 것은 아주 외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을 쌓아온 사람들이고 그 시간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보람일자리’이다.

나와 같은 ‘안전’ 분야를 비롯해 복지, 교육/보육, 지역특화일자리, 문화/예술, 환경까지 그 분야
도 다양하다. 우리의 경험을 가방에 담고 용기의 신발을 신고 나서자. 다시 돌아보지 못했던 삶을 되돌
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보람일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현역이다. 50+





50플러스와 더불어 길을 찾다

32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

다. 사진과 글쓰기, 그림 등을 배웠고 여행 관련 책도 출간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싶었다. 50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람일자리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지도와 50플러스센터 학습지원단으로 활동을 한 후에 장애인사업지원단에 응모를 했다. 교직에 있을 때 봉사활동 담당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에서 청소와 목욕시키기 등을 했었다. 그때의 경험을 살려 활동하면 보람도 찾고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면접을 거쳐 합격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첫 출근을 할 때는 기대가 됐지만 긴장감도 컸

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장애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미지수였다. 자폐와 다운 증후군, 집착, 강박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반에 배정이 되었고 담당교사의 보조 활동을 했다. 학생들의 행동 유형은 다양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책상만 바라보는 학생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하하' 웃거나, 마음대로 안 되면 책상을 '탕탕탕' 치는 학생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의사표현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 자신이 과거에 아팠던 경험과 현재의 증세를 자세히 설명하며 불안해 질까봐 두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하고 여러 번 만난 사람에게도 처음 본 것처럼 되풀이 했다.

내가 속한 반의 학생들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는데 다른 반은 말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았고 휠체어를 탄 학생들도 있었다. 야외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반의 구별 없이 학생들을 일대일로 돌봐야 했다. 20대 초반의 한 여학생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반 학생이었지만 가끔 우리 반에 들어와서 교실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자신의 손을 입에 댔다가 허리부분을 치는 동작을 반복했다. 선생님들의 목에 걸린 신분증을 낚아채기도 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 세계 뿌리쳤다. 그 여학생과 밖으로 나가 백화점을 향해 걸으며 인도를 걸어갔다. 그 여학생은 내가 손을 내밀자 거부하지 않고 꼭 잡았다. 어느 때는 스스로 팔짱을 끼오기도 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내릴 때나 바닥의 무늬가 복잡한 곳을 걸을 때는 좁은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했다. 평소에 복도의 벽에 달린 철제 봉을

불잡고 걸어 다니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감수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 여학생과 몇 번 손을 잡고 야외로 나갔다 온 후로 그녀는 실내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도 뿌리치지 않고 잡아주었다. 표정에 변화도 없고 의사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나름의 소통을 하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이 나보다 빨리 걷지도 못하고 때로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다. 나이 들어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학생들은 날씨가 궂으면 더 예민해졌다. 한 남학생은 집에서 잘 안 풀렸던 일이 있었는지 계속 집착하며 화를 내다 폭발을 해서 울고 교실에서 모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이 많은 여학생은 무섭다며 집에 가겠다고 울먹었다. 복도로 나와 여학생을 달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봉사하며 일하자고 기세 좋게 시작했는데 몸과 마음이 부담스러워졌다. 4개월 만에 활동을 접었다. 그만두고 며칠이 지나자 중도에 포기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치듯 나온 것이 자책이 되었다. 모든 일을 잘 하려했고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하면 피하는 것이 나 자신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다.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한 달여 지나 '공공복지 서포터즈 추가모집'에 지원을 했다. '노인복지관 주방보조' 일이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에게서 주방보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도전해 볼 만하다 싶었다. 살림했던 경험을 살리면 해낼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일을 시작하니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았다.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주방은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신속하고 위생적이며 체계적으로 만들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식기와 도구를 세척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 걸림돌도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적응해 나갔다. 함께 일하다 사정상 그만 둔 선생님도 있고 새로 온 선생님도 있었다. 함께 일하며 도와주고 배려할 때 힘을 얻고 위안을 받았다. 동료의 소중함도 배웠다.

복지관의 노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당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평소에 앉던 곳에 자리를 잡고 식사를 했다. 여자 노인 분들이 남자 노인 분들보다 두 배 많았다. 대부분 독거노인들인데 복장도 깔끔하고 질서를 잘 지켰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배달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집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었다. 처음에는 밀려드는 식판을 설거지하며 정신이 없었지만 차츰 조금씩의 여유를 지니고 노인 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공공복지가 잘 이루어져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배움의 기회도 갖고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본다. 50플러스재단을 통해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밖 선생님' 활동을 하며 인터넷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중고생들의 학습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탈북학생들의 학업을 돕거나 해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가 50플러스 활동을 통해 다른 위치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고 보람과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지금처럼 50플러스와 더불어 나의 삶의 범위를 넓히고 더욱 성장하고 싶다. 50+



50 이후 삶, 위시리스트의 첫 디딤돌

건설기업에서 웹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해오던 난 매년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바빠야 했다. 24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고 시작과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업무였다. 관련 트렌드와 기술은 하루하루 너무도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성취감보다 허탈감과 공허함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다. 오십이 된 이후 몸 이곳저곳에서도 너무 빨리 나이 듦의 신호가 왔다. 20여 년간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 볼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 50플러스포털에서 2022년 서울형 전직지원 특화과정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지역 워킹홀리데이는 39세 청년들로 제한된 것들뿐인데 50+세대가 대상이라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했다. 전라북도 임실, 무주, 부안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도와 프로그램 취지의 이해, 지원 단체들의 사전 브리핑, 지역단체와의 매칭까지 총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 과정도 새로웠다.

사람과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욱이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고 지역의 업체와 다른 지역의 사람을 매칭하는 것은 몇 배의 준비와 노력이 수반되는 어려운 일. 그러나 어려우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세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멋졌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뜨거운 여름, 디스크 수술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가족들은 우려 반, 응원 반이었지만 나의 경험이 지역단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 마인드를 앞세웠다. 스스로도 낯선 공간과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안으로 출발하는 기분은 오랜만에 설렘이었다.

처음 방문했던 6월, KTX를 타고 익산역에 도착했다. 익산에서 부안은 23번 국도를 타고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길을 잘못 들어 본의 아니게 골목투어가 돼버린 건 오히려 행운이었다. 부안에서 첫

인사를 나눈 장소는 예쁜 초등학교였다. 학생들의 하교가 끝났는데도 교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제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 알록달록 예쁜 정원 같은 운동장을 바라보며 옛 추억이 떠올라 잠시 머물다 부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착했다. 열정적인 사무국장님과 앓던 젊은 청년활동가들이 있었다. 첫 만남이었지만, 나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경험을 듣는 것은 새로운 배움이다.

오래된 공간에 지금의 시간을 압하고 있는 도시재생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20대의 청년활동가가 들려주는 30년 전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50세 이후 제2의 삶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하려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젊은 친구와 함께 걸었다. 여전히 서로에게 배우며 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

50세가 지나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작고 소소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항상 일 때문에 미뤘던 도전 중 하나가 지역살이다. 서울이 고향이다 보니 연고지가 없어, 지역살이는 막연한 꿈이었다. 머물 지역을 선정하고 살아갈 일을 계획하고 거주할 곳을 찾는 과정은 꽤 길어서 망설이다가 다시 익숙한 곳으로 안주하곤 했다.

미루고 시도하지 않은 것들,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경험하지 못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작게나마 시도해보는 것. 그 경험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 있고 생각지 못한 해답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하지 않은 워킹(working)이 필수 요소다. 워킹홀리데이에서 만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의 전체적인 온라인 운영 채널을 체크하고 활용할 채널들을 우선순위로 정리,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3개월 동안의 변화와 추후 운영 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마무리를 했던 부안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워킹은 즐거운 경험이자 보람찬 시간이었다.

오십이 된 이후의 삶, 난 그 시작선에 서있다. 워킹홀리데이로 부안에서 보낸 3개월은 나에게 과하지 않은 자극을 줬다. 다시 돌아온 서울에서의 일상은 변함없이 흘렀지만, 나는 나이 들어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 소소한 행복감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해 가을부터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경남 남해까지 지역에 참여하는 한 달 살기를 경험하는 중이다. 어느 순간 내가 머물고 싶은 지역이나 꼭 머물지 않고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다는 믿음 아래 각기 다른 콘셉트로 진행 중인 지자체 한 달 살기를 통해 지역 활동을 하고 지역 참여를 하는 중이다. 낯선 풍경은 어느새 낯익은 아는 동네가 되어가고, 그렇게 만난 인연은 다시 연결된다. 나의 일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배움이 되기도 한다. 지역에서 일하는 기업, 사람들과 교육으로 다시 만나는 기회도 된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50+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그렇게 50세 이후 제2의 삶을 고민하는 내게 빠르게 뛰는 방법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게 한 첫 계기가 되었다. 또 다시 걷게 하는 첫 디딤돌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얻은 경험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또 다음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해 본다. 50+

빈이와 용이를 만나 내 삶이 바뀌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울런4050 우수사례 공모전 제목인 “내 인생의 체인지업!”을 보고 ‘이건 내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막했던 은퇴 후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저는 2020년 퇴임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던 중 한국어 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015년부터 공부해 2018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는 은퇴 후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2~3년간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봉사활동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시민기자단 활동과 유튜브 강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일자리 ‘다문화학습지원단’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모집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문화학습지원단’은 50+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과 상호문화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보람일자리입니다.

서류, 면접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2022년 ‘다문화학습지원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도신초등학교에서 2학년 중국인 학생 두 명의 학습지도를 담당했습니다. 빈이와 용이였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진 기대와 각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에게 우리 한국어를 아주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학부에서의 전공이 언어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학생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나 발음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제가 맡은 학생은 활동기간이 끝날 때 유창한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지원입니다. 한국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나 상담 기법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두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교구 준비를 하고, 강의할 내용을 정리해 프린트로 만들고, 그리고 수업 후에는 매일 ‘수업일기’를 작성했습니다.

다문화학습지원단 활동 이전과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초등학생 2명으로 인원은 적었지만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것이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자료를 연구하는 등 학습지도에 대한 톨 형성과 습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갈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어린이든 성인이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확장되어 올해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식 강사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서초50플러스센터와 노원50플러스센터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 앨범 만들기, 영상 스토리 만들기, 블로그 글쓰기, 챗GPT와 AI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2022년 보람일자리 ‘다문화학습지원단’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도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나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은퇴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직장생활에만 충실했기에,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만난 것이 저의 삶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2막에 대한 목표와 진로도 한층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참여는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계발은 젊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4060세대도 계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데, 제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은 정말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콘텐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친구, 후배들에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꼭 만나 보라고 권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따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도전하면 얼마든지 좋은 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분들이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0+

“내 인생의 체인지업, 다음 선수는?”

‘내 인생의 체인지업!’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전을 진행하며, 어떤 사례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업의 이름이나 소개만으로는 참여하는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모전을 진행한 15일간 9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하나하나 사례를 읽어 내려가며 그동안 문자와 숫자로 보았던 사업의 결과를 생생한 사람과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서 참여자 각자가 들려주신 스토리들이 모두 반짝이는 성과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시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울런4050 사업운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은 그 반짝이는 사례들 중 19개의 이야기를 ‘전환, 변화, 성장’의 키워드로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와 수기로 담은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그동안 인생 2막의 새로운 진로 결정과 도전을 망설이던 분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직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 분들께는 좋은 롤 모델을 찾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어떤 멋진 체인지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런4050 안에서 참여자들의 긍정적이고 생기 있는 에너지가 계속 확산되어, 내년에는 더 새롭고 참신한 스토리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직원 일동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런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

내 인생의 체인지업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www.50plus.or.kr
제작부서	홍보협력팀
사진	안규림(인디언 스튜디오)
디자인·제작	씨스토리

이 책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 관계자와 참여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런4050 우수사례 스토리북'의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 중장년을 위한 모든 정보가 50+포털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4050 세대라면

지금 검색창에 **50플러스 ▾** 를 검색하세요.

중장년 세대의 생애와 경력설계를 위한 상담부터

다양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활동까지

모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포털
www.50plus.or.kr